

# 곡성군보건의료원, 지역주민 심뇌혈관질환 관리 '만전'

## 의료취약 지역 주민 대상 예방 프로그램 '호응' 남양보건진료소 건강 증진·치유 노력 돋보여

곡성군보건의료원이 '2024 보건진료소 중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질 높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8일 곡성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심뇌혈관건강지킴이 교실'은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해 체계적 예방관리·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곡성군보건의료원은 매년 관내 4개 보건진료소를 선택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 지원, 보건진료소장의 전문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지역주민들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만성질환 자가관리 능력을 높이는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

곡성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에서는 전문강사 지원, 사전사후 혈액검사와 인력지원, 간식비와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양측 팔 땀막과 발목 땀막의 혈압을 측정 후 발목상완지수 산출 결과를 대상자들에게 안내하고, 필요시



곡성 남양보건진료소가 주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건강지킴이 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곡성군 제공〉

개별 건강상담을 하는 '내 발을 부탁해'를 진행해 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곡성 남양보건진료소는 심뇌혈관건강지킴이 교실, 치매안심센터 등

보건진료소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보건의료적인 특성과 효과를 주민 건강 유지, 증진, 치유에 적용하려는 노력으로 본보기가 되고 있다.

남양보건진료소는 최근까지 심뇌혈

관건강지킴이 교실을 주 1회, 10회기 프로그램을 20명(만성질환자·재가 치매·인지저하자)에게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 대상으로 건강평가(인바디·

가슴둘레·고지혈증 등)와 함께 질환교육, 영양교육, 운동교육(요가·체조) 등 프로그램과 만성질환검사(경동맥초음파·미세단백뇨검사 등)를 병행해 자기 관리 등 케어 능력 향상, 심리적 건강, 우울, 불안에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했다.

최근 수료식에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협의회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와 함께 진료소와 진료소장의 버팀목이 지역사회 주민임을 각인시켰다.

손정실 남양보건진료소장은 "후배들에게는 보건진료 5급의 희망을, 퇴직이 임박한 저와 같은 보건진료소장에게는 K-보건진료정책 속에서 주민과 동고동락하는 꿈을 꾸는 열정이 아직 있다 보여준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곡성=김영필기자



##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 "워터샷 썸머 페스티벌"

여수 디오션 리조트가 20일부터 8월15일까지 매일 디오션 워터파크 파도풀 특설무대에서 '2024 워터샷 썸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여수 디오션 리조트 제공〉

디오션 워터파크의 여름축제 '2024 워터샷 썸머 페스티벌' (이하 '워터샷')이 오는 20일부터 8월15일까지 매일 진행된다.

18일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 따르면 디오션 워터파크 입장객이라면 무료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워터샷'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G.PAR K 박명수, DJ 찰스, DJ주디, DJ미유를 포함

내달 15일까지...매일 흥겨운 DJ공연  
바비큐 뷔페·클래식·재즈 공연 등 다채

한 20여명의 국내 정상급 DJ라인업으로 입장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시원한 물놀이와 신나는 음악, 뿔어져 나오는 스트라이트샷과 워터건 물줄기가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무대 양쪽에 위치한 워터캐논이 거대한 물기둥을 뿜어내며 흥을 극대화 시킬 예정이다.

워터샷에는 여름 물놀이에 빠질 수 없는 각종 물총과 고글의 반입이 가능하며, 오는 20일부터는 현장에 물총 대

여수가 마련될 예정이다.

디오션 워터파크는 다양한 물놀이시설 외에도 프라이빗한 카바나, 사전예약 후 가져온 음식을 자유롭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바비큐존 등 이색적인 장소로 보다 다채로운 물놀이 경험을 제공한다.

디오션 호텔 레스토랑은 19일부터 '더 테라스 바비큐 뷔페'를 운영한다. 바비큐 뷔페는 우대갈비와 한우 등심을 포함한 셀프 바비큐, 각종 해산물 및 한식을 포함한 20여종의 샐러드바를 즐길 수 있으며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와인 3종도 함께 맛볼 수 있다.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팝페라, 클래식, 재즈 등 공연도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디오션리조트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오션 호텔 레스토랑은 19일부터 '더 테라스 바비큐 뷔페'를 운영한다.

이날 김 군수는 ▲특랑면 도로 침수 현장 ▲특랑면 해평리 사면 유실 현장 ▲특랑면 하천제방 유실 현장 등을 찾아 주민과 함께 피해 및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보성군 산하 직원들에게 철저한 사전 대비를 위한 비상근무 강화, 피

## 화순군, 아삭한 식감 '딱복' 본격 출하

평년비 높은 기온...수확시기 1주일 앞당겨

화순군은 18일 "화순군 복숭아의 주 품종인 경봉을 본격 수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복숭아 재배 면적이 22ha로 전남 최대 복숭아 산지다. 화순군은 노숙 갱신과 출하기 분산을 위해 조생종 국내 육성 '물복' 품종으로 ▲미향 ▲엘로드림 ▲금향 ▲홍백 등을 보급했고, 6월 초부터 지금까지 출하되고

있다. 경봉은 화순군 복숭아의 대표 품종으로 경도가 높아 '딱복'으로도 불린다. 7월 하순 수확되는 중·만생 대과종 백도 복숭아로 내한성이 약해 남부지방 이외의 지역은 재배가 어렵다.

올해는 평년 대비 높은 기온, 일조시간 증가 등 이상 기후로 수확기가 1주일 정도 당겨져 경봉을 일찍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장마 기간이 짧고 일조량이 많아 수확량이 많고 당도도 높아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류창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가를 대상으로 복숭아 기술 보급 확산 지원단 컨설팅, 탄저병 체계방제 실증사업 등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복숭아 숙기 판단 ▲수확 후 관리 ▲비파괴 당도 측정 등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하니움 체육관에서 '제14회 화순 명품 복숭아 문화축제'가 개최돼 복숭아 품평회를 비롯해 복숭아 가요제, 100인분 복숭아 비빔밥 나눔, 복숭아를 이용한 체험 등 다양한 소비자 참여 행사가 진행된다.

／화순=이병철기자

## 광양경제청 홍보관, 여름방학 견학장소 '인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 견학이 지역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18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여름방학에 많은 견학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하동 고등학교에서 지역연계 진로체험의 일환으로 견학을 실시, 여수공업고등학교도 성황리에 견학을 마쳤다.

이번 방문은 학생들에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다양한 경제 활동과 발전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홍보관 내 전시와 설명을 통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개발현황, 핵심전략산업, 입주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단지와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설명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지역의 경제 활동과 발전 가능성을 직



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주역들이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광양=양홍철기자

## 담양군노인복지관, 돌봄 특화시설 '탈바꿈'

족욕실·힐링안마실·시니어클럽 사무실 등 갖춰

담양군노인복지관은 "최근 전국 최초 재할·돌봄으로 특화된 담양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으로 새롭게 개관했다"고 18일 밝혔다.

담양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도행정'을 실천할 공간으로 탈바

꿈꿨다.

담양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복지관 3층(1천456㎡·440평)을 재할과 돌봄을 위한 보행훈련, 근력강화운동, 인지 학습, 족욕실, 힐링안마실 등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 증진

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사무실과 어르신들에게 웃음 치료, 건강 체조 등의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스마트경로당 스튜디오를 설치했다.

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은 "평소 서있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었는데 몸도 가벼워지고 걸음걸이도 한결 수월해진 것 같다"며 "살기 좋은 행복한 담양을 위한 효도 정책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병노 군수는 "최신 장비와 전문 인

력을 통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향촌복지'를 실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이러한 향촌복지 정책에 힘입어 최근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전국 13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지수' 평가에서 담양군은 농어촌 군 지역 전남 1위, 전국 89리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담양=정승균기자

## 구례군-(주)휴살림, 친환경 농업 실천 '맞손'

구례군은 18일 "지난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주)휴살림과 친환경 농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와 이태근 휴살림 회장은 협약서에 서명하며 ▲친환경 농업 실천 ▲유기농산물 소비 촉진 ▲탄소중립과 휴살리기 행사 지원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활동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주)휴살림은 1991년 괴산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대한

민국 유기농업을 선도하며 휴 살리기 운동을 30년간 실천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구례군의 휴 살리기 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 탄소중립 휴 살리기 박람회는 오는 9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구례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생명의 근원 휴, 자연을 품은 구례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구례=임종길기자

## 김철우 보성군수 "호우 피해복구역량 총동원"

특랑만 도로 침수 등 피해 현장 긴급 점검

보성군은 18일 "지난 16일 이른 오전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관내 곳곳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김철우 보성군수가 호우피해 현장 방문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군수는 ▲특랑면 도로 침수 현장 ▲특랑면 해평리 사면 유실 현장 ▲특랑면 하천제방 유실 현장 등을 찾아 주민과 함께 피해 및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보성군 산하 직원들에게 철저한 사전 대비를 위한 비상근무 강화, 피

해 우려 지역 순찰 강화, 산사태 우려 지역 점검 등 호우 예방과 피해복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보성군은 호우 특보 발령에 따라 대책본부 등을 운영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긴급재난문자 발송, 산책로 출입 통제,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사전대피 등을 안내하며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철우 군수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많은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여



름철 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상 상황을 계속 주시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

구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기자